

# < 인간과 반려동물 사이에서 에로스는 가능할까? >

사학과 2016\*\*\*\*\* 하금지

1. 서론
2. 반려동물과 사랑의 의미
2-1. 반려동물이란?
2-2. 사랑이란?
3. 인간과 반려동물 사이의 에로스
3-1. 인간의 측면
3-2. 반려동물의 측면
4. 결론

## 1. 서론

반려동물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그들의 주인에게 기쁨을 주고 정서적 교감을 이룸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반려동물은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 있어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으며 삶의 동반자이고, 무조건적 사랑의 대상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 사회에서 인간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여가 문화 공간, 반려동물의 장례를 지내는 장묘시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반려동물의 상실로 인한 비애로 경험하는 상실감과 우울 증상을 말하는 ‘펫로스’라는 용어도 생겨났다. 또한, 인간과 인간의 결혼이 아닌 인간과 반려동물의 결혼이라는 새

로운 형태의 결혼이 나타났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반려동물 사이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반려동물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현대 사회에는 인간과 반려동물의 사이가 과거와 달리 현대에는 어떠한지와 관련하여 반려동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의할 것이다. 그다음, 사랑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때 《향연》을 중심으로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의할 것이다. 그리고 《향연》의 에로스를 중심으로 인간과 반려동물 사이에 에로스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우선 인간의 측면에서 에로스가 가능한지 보고, 다음 반려동물의 측면에서 에로스가 가능한지 볼 것이다. 만약 인간과 반려동물 사이에 에로스가 가능하다면 《향연》의 에로스를 근거로 하여 정의한 사랑을 통해 반려동물 사이에 에로스가 가능함을 보여줄 것이다. 반면, 인간과 반려동물 사이에 에로스가 가능하지 않다면 인간과 반려동물 사이의 한계,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향연》의 에로스를 중심으로 알아볼 것이다.

## 2. 반려동물과 사랑의 의미

### 2-1. 반려동물이란?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는 노벨상 수상학자인 동물학자 K. 로렌츠 박사가 80회 생일을 기념하여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The Human-pet relationship(인간과 반려동물과의 관계)’ 심포지엄에서 학술적으로 반려동물이라 명명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반려동물이란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의미로,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동물을 인간의 가족이나 친구, 반려자와 같은 역할로서 자리매김하는 호칭이다. 이것은 기존의 일반적인 반려동물 의미에서 벗어나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며 동반자적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그 역할에 대한 가치성을 인정받게 되면서 나타난 것이다.<sup>1)</sup>

하지만 원래 반려동물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애완동물이라는 의미가 강했다. 애완동물이란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기르는 동물이라는 뜻으로, 옆에 두고 만지면서 귀여워 할 수 있는 하나의 소유물과 같은 것이었다. 애완동물에는 단순히 장난감처럼 즐거움만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인간에 의한 소유가 더욱 강조된 개념인 것이다.<sup>2)</sup>

하지만 최근에는 동물을 한 가족, 반려 또는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며, 인간과 동고동락하는 존재로 여생을 함께 보낸다는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으로 변화된 것이다. 그 이유는 산업화로 인한 인간관계의 단절로 외로움을 느끼는 인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인간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동물로, 우리 자신과 관계를 맺고만 살 수 없으며 타인과 세계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무언가 그 공백을 채워 줄 대상이 필요하

1) 김효정, 문영희, 「반려동물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고찰」,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7집,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1, pp.458-459

2) 이서운, 「현대 한국사회에서 '애완동물'의 사회학적 의미」,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9, pp.23-34

게 된 것이고, 그 공백을 채워 줄 대상이 반려동물이 된 것이다. 인간들이 동물과 함께 지내면서 표정, 눈빛, 몸짓, 소리 등을 통한 정서 공감을 통해 관계를 맺으면서 그 공백을 채워나가기 시작하였다. 이에 인간들은 반려동물을 인간의 가족이나 친구, 반려자, 사회의 일원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 2-2. 사랑이란?

우선 사랑을 알기 전 욕망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욕망은 《향연》의 아리스토폴라네스가 말하는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본성이 둘로 갈렸기 때문에 반쪽 각각은 자신의 나머지 반쪽을 그리워하면서 줄곧 만나려 들었네. 서로 팔을 얼싸안고 한데 뒤엉켜 한 몸으로 자라기를 욕망하다가 결국에는 상대방과 떨어진 채로는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굶어서 혹은 다른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죽어 갔네. 또 반쪽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죽고 나머지 하나가 남게 될 때면 그 남은 자는 다른 것을 찾아다니다가 그것과 한데 뒤엉키게 되었는데, 전체가 연인인 자의 반쪽(지금 우리가 연인이라 부르는 게 바로 그것이지)과 만날 때도 있었고 남자의 반쪽과 만날 때도 있었다네. 어쨌거나 그렇게 그들은 멸망해 가고 있었네.’ 3)*

욕망은 주체의 결핍이 타자를 통해 채워질 것이라 생각하여 주체의 결핍이 사라질 것이고 완전해질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기 때문에 격렬하다. 하지만 주체의 결핍이 채워지면 익숙해지고 친근해지므로 다시 결핍이 생겨나 다른 곳을 향해 떠나가면서 만족이라는 것이 지연된다. 그래서 욕망을 격렬하지만 깨지기 쉽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사랑은 주체의 결핍이 주체의 열림이 되어 타자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주체의 결핍과 타자의 결핍이 겹치는 곳에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겹치는 곳에 발생하는 것은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인식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타자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혹은 있는 그대로의 타자와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체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 타자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혹은 있는 그대로의 타자와 만나는 것을 통해 주체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게 되는 것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는 《향연》의 지혜 사랑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에로스야말로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결여하고 있는 바로 이것들을 욕망한다고 동의한 바 있지요.’ 4)*

3) 플라톤, 『향연』, 강철웅 옮김, 이제이북스, 2014, p.99

4) 위의 책, p.127

‘그런가 하면 무지한 자들도 지혜를 사랑하지 않고 지혜롭게 되기를 욕망하지도 않습니다. 무지가 다루기 어려운 건 바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거든요. 즉 아름답고 훌륭한 자도 분별 있는 자도 아니면서 자신을 만족스럽게 여긴다는 것 말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는 자기가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것을 욕망하지 않습니다.’ 5)

‘그렇다면 뭉뚱그려 말하면 사랑은 좋은 것이 자신에게 늘 있음에 대한 것이네요.’ 6)

‘가사적인 본성은 할 수 있는 한 늘 있기를 즉 불사이기를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 방법으로만 즉 생겨남으로써만 할 수 있다.’ 7)

인간은 가사자로서 아름다운 것들과 좋은 것들을 변치 않는 방식으로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 그래서 지혜의 확고한 소유를 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우리가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욕망하기 때문에, 지혜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사랑은 우리를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으로 향하게 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끊임없이 조회하도록 하므로 우리의 무지를 자각할 수 있다. 우리의 무지의 자각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질문을 하게 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게 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사랑은 다른 곳을 향해 떠나갈 필요가 없기에 만족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은 은은하면서 단단하다고 볼 수 있다.

‘단언컨대 마음의 시각은 눈의 시각이 정점에서 내리막으로 접어들려 할 때 날카롭게 보기 시작한다네. 그런데 자넨 아직 이런 것들에서 한참 떨어져 있네.’ 8)

이를 《향연》의 소크라테스가 알키비아데스에게 한 말을 통해서 욕망은 환상 때문에 타자를 제대로,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다. 그래서 욕망의 정점에서 내려와 비로소 타자를 제대로,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을 때 사랑으로 이행된다.

---

5) 위의 책, p.204

6) 위의 책, p.135

7) 위의 책, p.139

8) 위의 책, p.164

‘올바르게 에로스 관련 일들을 향해 가는, 혹은 다른 이에 의해 이끌리는 것이란 바로 이것이니깐요. 즉 이 아름다운 것들에서부터 시작하여 저 아름다운 것을 목표로 늘 올라가는 것 말입니다. 마치 사다리를 이용하는 사람처럼 그는 하나에서부터 둘로, 둘에서부터 모든 아름다운 몸들로, 그리고 아름다운 몸들에서부터 아름다운 행실들로, 그리고 행실들에서부터 아름다운 배움들로, 그리고 그 배움들에서부터 마침내 저 배움으로, 즉 다름 아닌 저 아름다운 것 자체에 대한 배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아름다운 바로 그것 자체를 알게 되는 거죠 9)

《향연》의 올바르게 에로스 관련 일들을 향해 가는 부분을 통해서 사랑은 드물고도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인간과 반려동물사이의 에로스

인간과 반려동물 사이에서 에로스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과 반려동물 사이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반려동물이 인식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려동물의 의미에서 인간은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면서 표정, 눈빛, 몸짓, 소리 등을 통한 정서 공감을 통해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로 인간과 함께 지내면서 인간의 표정, 눈빛, 몸짓, 소리 등을 통한 정서 공감을 통해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여 반려동물도 인식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였다.

반려동물의 의미에서 반려동물은 산업화로 인한 인간관계의 단절로 외로움을 느끼는 인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무언가 그 공백을 채워 줄 대상이 필요하게 된 것이고, 그 공백을 채워 줄 대상이 반려동물이 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욕망의 의미와 엮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욕망은 주체의 결핍이 타자를 통해 채워질 것이라 생각하여 주체의 결핍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인간과 반려동물 사이는 사랑의 관계가 아닌 욕망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욕망의 관계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인간의 측면과 반려동물의 측면이 다르기 때문이다.

#### 3-1. 인간의 측면

우선, 인간의 측면에서 보고자 한다. 인간은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면서 표정, 눈빛, 몸짓, 소리 등을 통한 정서 공감을 통해 관계를 맺고 지내면서 반려동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반려동물이 죽은 뒤에도 반려동물을 기억해줌으로써 반려동물의 가상성을 불사성으로 전환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면서 인간과 반려동물 사이에 에로스가 가능할 것처럼 보인다.

---

9) 위의 책, p.146

그리고 인간은 처음에 자신의 외로움, 즉 결핍을 채우기 위해 반려동물을 데리고 온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만약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반려동물을 데리고 온 것 이면 욕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만약 인간이 자신의 결핍이 채워졌으면 인간은 반려 동물을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일부 인간들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결핍이 채워졌다고 해서 반려동물을 떠나지 않았다. 이는 욕망이 사랑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욕망이었을 때의 반려동물은 그저 좋기만 하였다면,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면서 표정, 눈빛, 몸짓, 소리 등을 통한 정서 공감을 통해 관계를 맺고 지내면서 반려동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점을 보면서 인간과 반려동물 사이에 에로스가 가능할 것처럼 보인다.

### 3-2. 반려동물의 측면

그다음, 반려동물의 측면에서 보고자한다. 반려동물은 인간과 함께 지내면서 표정, 눈빛, 몸짓, 소리 등을 통한 정서 공감을 통해 관계를 맺고 지내면서 인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자신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려동물은 인간이 죽은 뒤에도 인간을 기억해줌으로써 인간의 가사성을 불사성으로 전환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점 을 보면서 인간과 반려동물 사이에 에로스가 가능할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반려동물도 처음에는 인간을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존재로 인식하여 인간에게 다가 온다. 그래서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반려동물이 인간의 곁에 머무는 것은 욕망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자신의 결핍이 채워졌다고 해서 인간을 떠나지 않았다. 이 는 욕망이 사랑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욕망이었을 때의 인간은 그저 좋기 만 하였다면, 인간과 함께 지내면서 표정, 눈빛, 몸짓, 소리 등을 통한 정서 공감을 통해 관계를 맺고 지내면서 인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점 을 보면서 인간과 반려동물 사이에 에로스가 가능할 것처럼 보인다.

## 4. 결론

《향연》에 나오는 사랑을 중심으로 인간과 반려동물 사이의 사랑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반려동물은 단순히 장난감처럼 즐거움만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인간에 의한 소유의 의미를 가진 애완동물에서 인간과 표정, 눈빛, 몸짓, 소리 등을 통한 정서 공감을 통 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객체로 변화하였고, 《향연》에 나오는 사랑은 자신이 누구인 지에 대해 질문을 하게 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게 해주는 것이며 욕망의 정점에서 내려 와야지 사랑이 이행될 수 있다며 사랑은 드물고도 어렵다는 것이다. 인간과 반려동물은 서로를 기억해줌으로써 가사성을 불사성으로 전환해주며, 또한 같이 지내면서 서로의 있는 그 대로 모습을 받아들인다. 이를 통해 인간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과 반려동물 사이 에 사랑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들은 반려동물을 인간의 가족이나 친구, 반려자, 사회의 일원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반려동물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연구가 반려

동물들의 지위에서 나아가서 인간과 반려동물사이의 사랑에 대해서도 활발히 연구가 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를 통해 많은 인간이 인간과 반려동물 사이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한다.

## < 참고문헌 >

### 단행본

1. 플라톤, 『향연』, 강철웅 옮김, 이제이북스, 2014

### 학위논문

1. 김효정, 문영희, 「반려동물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고찰」,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7집,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1
2. 이서운, 「현대 한국사회에서 '애완동물'의 사회학적 의미」,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9